

배포 2023. 6. 22.(목) 15:30

(인터넷) 2023. 6. 23.(금) 10:30

(지면) 2023. 6. 23.(금) 10:30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 학대 등 위기징후 관찰 및 연계 지원 결과를 포함한 유관기관 합동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전수조사 결과’ 발표
- 디지털 시대를 열어가는 구성원으로서 자립준비청년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기반 자립준비청년 지원방안’ 발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6월 23일(금) 서울청사에서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합동 전수조사 결과’ 및 ‘디지털 기반 자립준비청년 지원방안’을 발표한다.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전수조사’는 지난 3월 17일(금) 발표한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최초 실시된 것으로, 아동학대 징후의 조기 발견 및 예방을 위해 교육부-복지부-경찰청이 합동 실시하였다.

※ (조사대상) 3월 중 7일 이상 학교에 나오지 않은 장기 미인정결석 유치원·초·중·특수학교 학생
(조사기간) 2023.3월 ~ 4월

조사 결과,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총 6,871명 중 20명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 정황을 발견하여 수사가 진행 중(송치 4명, 수사 중 16명)이다.

또한, 동 조사에서 학대 피해학생뿐만 아니라 각종 성장지원이 필요한 위기 학생도 발굴하여 학교·교육청·지자체를 통해 총 1,943건의 교육, 심리·정서, 사례관리 등을 지원하였다.

향후 교육부는 아동학대 등 위기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의 안전점검을 정례화(연 2회)하고, 학교·교육청·지자체 등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학습·상담·치료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디지털 기반 자립준비청년 지원방안’은 제4차 산업혁명, 디지털 대전환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디지털 자유, 디지털 보편권이 중요해지는 가운데, 보호대상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이 디지털 시대를 열어가는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먼저, 복지시설 아동의 교육 격차, 정서 불안 해소를 위하여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교육, 독해력 진단·향상 서비스, 심리 상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자립준비청년 맞춤형 디지털 교육을 지원하고, 디지털 시대에 원하는 진로를 설계하고 직업적 성취를 얻을 수 있도록 일자리 연계 및 진로 지원도 추진한다. 지속적인 디지털 분야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자립준비청년 간 멘토링 활동, 디지털 분야 직업체험도 활성화 해나갈 예정이다.

※ ‘디지털 기반 자립준비청년 지원방안’은 별도 보도자료 배포(과기정통부, 6월 23일)

【붙임】 유관기관 합동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전수조사」 결과

【별첨】 아동학대 징후 조기발견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전수조사」 결과 보고

담당 부서 <총괄>	교육부 사회정책협력관 사회정책총괄담당관	책임자	과장직무대리	이용욱 (044-203-7254)
		담당자	사 무 관	김상덕 (044-203-7267)
<자립준비청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정보통신산업기반과	책임자	과 장	이주식 (044-202-6240)
		담당자	사 무 관	이주연 (044-202-6245)
<장기 미인정결석>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관 교육복지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정윤경 (044-203-6521)
		담당자	사 무 관	김보현 (044-203-6527)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아동학대대응과	책임자	과 장	조우경 (044-202-3380)
		담당자	사 무 관	육성훈 (044-202-3447)
	경찰청 생활안전국 아동청소년과	책임자	총 경	이영우 (02-3150-2048)
		담당자	경 정	김민성 (02-3150-2448)

□ 조사 개요

- (대상) 3월 한달 동안 7일 이상 장기 미인정결석 상태인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특수학교 학생에 대한 대면관찰 실시(∼'23. 4. 30.)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및 출입국사실확인서 등으로 출국이 확인된 경우는 제외
- (절차) 학생·보호자 내교상담 요청을 통한 대면관찰 실시 → 내교상담을 거부하는 경우 학교·읍면동 또는 학교·시군구·경찰 합동 가정방문 실시

구분	방문 요건
학교-읍면동이 동행하는 경우	학교에서 내교요청 등을 통해 대면관찰을 시도하였으나 거부하여 가정방문이 필요한 경우 등
학교-시군구-경찰이 동행하는 경우	학교에서 유선으로 수차례 가정방문 실시를 재안내하고, 학교-읍면동이 가정방문을 1회 이상 실시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아동에 대한 대면관찰을 거부하는 경우 등

- (후속 연계 지원)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사례관리(아동보호전문기관) 진행,
필요한 경우 비밀전학, 등교학습지원 등 교육제도를 활용한 지원 연계
- 학대 정황은 포착되지 않으나 학생의 발달상 지원이 필요한 경우
교육·복지 등 관련 서비스 연계
※ [교육청] 심리상담, 학습지원 등, [지자체] 생계급여, 의료급여, 드림스타트 연계 등

□ 전수조사 결과 주요 내용

① 학교급별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현황(특수학교 포함)

- 조사 결과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은 총 6,871명, 이 중 유치원생 5명, 초등학생 4,053명, 중학생 2,813명(특수학교 포함)

학교급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합계
학생 수	5	4,053	2,813	6,871

※ 장기 미인정결석 주요 사유: 대안교육 이수, 가정내학습(홈스쿨링), 학교부적응 등

②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대상 대면관찰 등 조치 결과

- '이상없음' 6,812건, '이상징후 발견으로 아동학대 신고 또는 수사 의뢰·연계' 59건이며, 그중 아동학대 범죄 수사 진행 건 20건(송치 4, 수사중 16)

대면관찰 결과 이상 없음	이상징후 의심·발견으로 아동학대 신고 또는 수사 의뢰 연계			합계
	범죄정황 미발견	수사 진행	합계	
6,812	39	20 (송치4, 수사중 16)	59	6,871

- 현장에서 아동의 안전 확보 및 재학대 우려 등으로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분리 조치* 실시

* 즉각분리(「아동복지법」 제15조)

③ 전수조사 결과 발견된 피해학생 및 위기학생 지원

- 학대 피해학생, 그 외 성장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위기학생에게 학교·교육청·지자체에서 교육 지원, 심리·정서 지원, 복지서비스 지원 등 총 1,943건 연계

유형	교육·학습 지원	심리·정서 지원	경제적 지원	사례관리·서비스 지원	기타	합계
건수	167	1,475	171	37	93	1,943

- 특히, 수사진행 중인 학생 20명에게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의 상담·심리지원 등 사례관리 연계, 교내 위(Wee)클래스 상담, 교사의 가정방문을 통한 수업 지원, 병원 연계 등 위기요인별 맞춤형 지원 실시

【피해학생 및 위기학생 지원 연계 유형】

- (교육·학습 지원) : 아동학대 피해아동 및 가족에 대한 등교학습 지원* 및 비밀전학, 기초학력 지원·진로지도 등 여타 교육적 지원(167건)
 - * 등교학습 지원: 쉼터, 조부모댁 등 원적교와 먼 곳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학대 피해학생 및 가족이 학적변경 없이 인근 학교에 임시적으로 등교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
- (심리·정서 지원) ^[학교 내 지원] Wee클래스, 담임교사 상담 등 지원, ^[외부기관 연계] Wee센터, 도서관, 체험센터, 민간 센터, 의료기관 등에서의 지원(1,475건)
- (경제적 지원) 생계급여,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등(171건)
- (사례관리·서비스 지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드림스타트 지원 등(37건)
- (기타 지원) 교수학습자료·생필품 제공, 돌봄 등 기타 지원(93건)